

하루가 너무 짧아요

가정전문 간호사 장은진(헬레나)

글 · 김성테(자유기고가) / 사진 · 황남이

“가정 관리간호사요?”

“환자가 병원에 일정기간 입원해서 집중적인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나, 계속적인 치료 및 간호가 필요할 때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가정전문 간호사가 환자분의 맥을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건강관리를 직접 제공하는 선진화된 의료서비스를 말하죠.”하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자세히 설명한다.

“생로병사 중에 그 일부라도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질병이랍니다. 건강할 때야 건강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의료의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잠시라도 머뭇거릴 틈이 없습니다.”하면서 자리를 박 친다.

따사로운 햇빛이 내리쬐는 어느 가을날, 성수동 성당 한 켠에서 만난 장은진 간호사는 그렇게 말문을 열었다.

1977년에 가톨릭대학 간호학과에 졸업하고 성모병원에서 간호사로 4년여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결혼하면서 병원을 그만두었다.

평소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의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몇 해 전부터는 수지침도 배워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있다.

지금은 남편의 사랑스런 아내이며 군에 간 두 아들의 어머니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지낸다.

“간호사로 근무한 경험도 살리고 성수동에서 20여 년간 살면서 친해지고 정든 이웃들에게 남다른 봉사를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바로 가정전문 간호사인 것 같아 보람을 느낍니다. 가정전문 간호사는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가진 간호사로서 가정간호 전문교육기관에서 1년간 가정간호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가정간호사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간호사입니다.”라고 가정전문 간호사를 소개한다.

세례명이 헬레나인 장은진 간호사는 중·고등학교 학창시절부터 종교 활동을 하였고, 지금도 일주일 모두를 성수동 성당에서 지낸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정간호사로 환자들을 일일이 찾아 나서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성당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평일에는 오전 9시에 성당에 나와 하루의 일과를 점검하고 그날 찾아봐야할 환자들과 일일이 통화하여 일정을 잡는다.

환자들을 돌봐야 할 지역이 성수동에서 광장동까지 제법 거리가 되나, 환자들의 시간에 맞추어야 하니 부지런히 돌아다녀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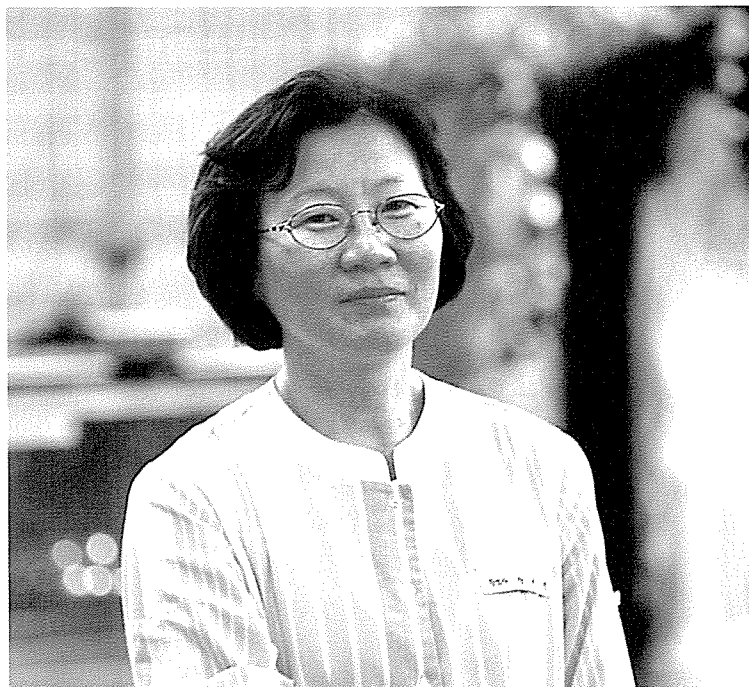
작은 경차에 몸을 싣고 달려가는 장은진 간호사는 큰길은 물론 작은 골목길 하나까지 구석구석 찾아다니고, 그러한 장은진 간호사가 나타나면 아파트 경비는 물론 지역주민들도 서둘러 그녀를 맞이하며 주차할 자리를 내어준다.

어떤 사람들이 가정간호사를 만나게 되니까? 하는 질문에 "암 환자나 호스피스 간호사가 필요한 환자, 당뇨 및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자, 중풍, 뇌 손상 등의 재활환자, 수술 후 조기 퇴원환자, 기타 주치의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환자상태를 관찰하여 평가·기록하고, 질병과 관련된 전반적인 관리 및 통증관리를 합니다. 또한 주치의 처방에 의한 특수처치 및 약물투여처치를 하기도 하고, 마비환자를 위한 욕창전문처치 및 체위변경과 관절운동,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교육, 질병상담 등 의료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죠."

"또, 환자의 입장에서서는 병원에 가지 않고 익숙한 환경인 자신의 집에서 치료를 받으므로 시간, 의료비용 및 노력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가정전문 간호사로부터 가족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족이 환자치료에 직접 참여하여 자가간호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녀가 돌보는 환자와 가족들은 마치 한 가족처럼 그녀를 반긴다.

환자와 마주한 장은진 간호사는 환자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본 후 환자의 손톱과 발톱을 깎아주고 마사지를 해주며 환자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을 방문하여 짧은 시간이나마 환자와 많은 이야기를 하다보니 간호사라기보다는 가족 같은 마음이 들고, 그러다보니 환자들의 집안 사정을 속속들이 알게 되었어요."

"환자들이 저를 손꼽아 기다려요, 찾아보는 것은 비록 간호 전문 간호사이지만 그들에게는 이야기 상대이며, 자신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의료인이기에 심적으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죠. 경제 사정이 어려워 비교적 부담이 적은 비용조차 부담스러워하는 환자를 볼 땐 너무도 가슴이 아프죠."

언제가 환자가 '난 몸이 불편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대신 간호사님을 위해 열심히 기도할게요.'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세상에서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처럼 정말 너무도 행복했다고 말하며, 성수동의 성당 신부님과 수녀님들 또 여러 관계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도와주어 크게 도움이 된다고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 또한 잊지 않았다.

"가정간호제도의 활성화로 좀 더 많은 환자가 더 많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루가 너무 짧아 아쉬워요." 하며 또 다른 환자를 찾아 떠난다. 🐦